

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

Issue 38 / 2007.11.21

□ OECD 국가 석유수요 감소

- IEA는 유가상승으로 인해 '07년 4/4분기 선진국의 석유수요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음.
- OECD 회원국의 석유수요는 '06년 4,967만 b/d에서 '06년, '07년에 각각 4,932 b/d, 4,923 b/d로 2년 연속 하락하였으며, 이 추세는 '08년에도 지속될 것임.
- IEA는 '07년 4/4분기 수요 전망을 50만 b/d 낮추었으며, '08년 역시 30만 b/d 낮추었음.
- 특히 수송부문의 수요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며, 미국의 가솔린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0.5% 하락하였음.
- 그러나 IEA는 북미와 유럽, 아시아 선진국의 수요하락에도 불구하고 비OECD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계 석유시장은 '08년에도 타이트할 것이라고 전망함.
- '08년 세계 석유수요는 2.3%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, 이 중 대부분이 비OECD 국가 특히 중국, 중동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.

(UPI, 2007.11.13)

NEWS

- OECD 국가 석유수요 감소
- 일본 전기사업분과회, 전력경쟁제도 검토결과 수용
- 투르크메니스탄, '30년까지 가스생산 3배 증산
- 미국 에너지부, 에너지공급원 다양화 강조
- 브라질 Petrobras, 아시아시장 진입추진
- 베네수엘라, '12년 중국에 100만 b/d 수출
- OPEC의 석유수입 급증
- 유럽의회, 탄소거래제에 항공기 포함 결정
- 프랑스 Areva와 독일 Siemens 협력관계 차질
- Acciona와 Enel의 Endesa 지분 매도와 신재생에너지 회사 설립
- 알제리 Sonatrach, 이탈리아와 가스협정 체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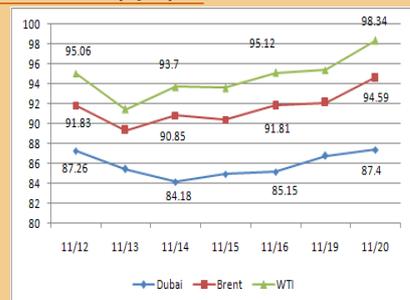
ANALYSIS

- 향후 국제유가 진단
- 인도의 제 11차 전력수급계획
- UN 국제배출권거래 기록시스템 운영 개시

REPORT

- UK Energy Market Outlook

Oil Prices (Spot)



자료 : 한국석유공사



ASIA & AMERICA

□ 일본 전기사업분과회, 전력경쟁제도 검토결과 수용

- 제도개혁실무회는 15일에 경쟁환경 정비와 안정공급, 환경적합성에 관한 검토결과를 전기사업분과회위원회에 보고하였고, 분과회는 이를 큰 맥락에서 수용함.
 - 경쟁환경 정비에서는 도매전력거래의 활성화, 임밸런스 요금의 재검토, 탁송요금의 변경명령발동기준 재검토 등의 검토결과가 제시됨.
 - 안정공급에서는 지역별 수급 파악과 중립기관의 프로세스추가, 환경적합에서는 교토메커니즘 크레디트 거래도입 등이 보고됨.
- 한편, 경쟁환경 정비와 안정공급 강화와 환경적합성 등 각 부문에 대해서 우려와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음.
 - 경쟁환경 정비에 관해서는 비대칭규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하며, 특정규모전기사업자(PPS)는 향후 제도설계에 관하여 신규참가자의 부담을 배려한 임밸런스 요금 재검토와 탁송종목별 격차시정을 위한 노력을 요청함.
 - 안정공급을 위해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비용절감 대책이 필요하며, 공급부족시에 가격이 상승하므로 시장체제의 문제해결책이 요구됨.
 - 환경적합성에서는 크레디트 거래에서 전력업계가 판매할 수 있는 여유분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고, 석탄화력발전의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조치와 체제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됨

(日本電氣新聞, 2007.11.16)

□ 투르크메니스탄, '30년까지 가스생산 3배 증산

- 투르크메니스탄이 '30년까지 자국의 가스 생산량을 현재의 3배 이상 증산할 계획임.
 -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지난 13일 '30년까지 가스 생산량을 연간 2,500억 m³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음.



- 탐사작업 및 가스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에너지 부문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자원개발 경험이 풍부한 외국기업과 국제금융기관들과 대규모 유·가스 개발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함.
- 또한, 연간 산유량도 현재의 6,500만 톤에서 '30년에는 1억1,000만 톤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음.
- 투르크메니스탄이 이와 같은 장기적 에너지자원개발 목표를 밝힌 것은 이번 주 열리는 석유 및 가스 국제회의를 통해 자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.

(Platts, Reuters, 2007.11.13)

□ 미국 에너지부, 에너지공급원 다양화 강조

- 11월 1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 20차 세계에너지회의각료포럼(World Energy Congress Ministerial Forum)에서 미국 에너지부 Bodman 장관은 에너지공급 다양화를 위한 각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역설함.
 - Bodman 장관은 세계 에너지안보 증대를 위한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국 모두의 공급원 다양화에 대한 적극적 투자, 에너지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, 청정에너지기술의 보급 확대를 주장함.
- 이번 회의에 앞서 미국의 Bodman 장관과 이탈리아의 경제부 Bersani 장관은 양국 간의 에너지기술연구 및 개발증진을 위한 협정에도 서명함.
 - 협정의 주요 내용은 양국 간의 원자력기술개발증진, 탄소포집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, 기술증진을 통한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한 노력임.
 - Bodman 장관은 이탈리아가 세계원자력에너지파트너쉽(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, GNEP)에 17번째 국가로 참가함을 환영함.
 - ※ 미국은 '05년 8월 에너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원자력산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, '06년 2월 'GNEP 구상'을 발표한 바 있음.

(www.doe.gov, 2007.11.15)



□ 브라질 Petrobras, 아시아시장 진입추진

- Petrobras는 일본 내 정유시설 매입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통해 일본과 중국, 한국 등 아시아시장 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.
 - Petrobras는 지난주 Exxon Mobil의 일본 정유시설인 Nansei Sekiyu Kabushiki Kaisha(NSS)의 총 지분 87.5%를 \$5,000만에 매입하였으며, 나머지 12.5%는 일본의 Sumitomo가 계속하여 소유하게 될 것임.
 - NSS의 정유능력은 10만 b/d 급으로, 석유 터미널과 960만 배럴급 저장 능력, 9만7,000 톤급의 선박용 부두 3개와 최대 28만 급 VLCC용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음.
 - 현재 브라질에서 추출되는 석유는 18°~20° API에 이르는 중질유로 Brent나 북해산보다 \$10~12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.
- 이번 인수를 통해 브라질은 석유 외에도 사탕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수출을 확대할 방침임.

(EFE, 2007.11.13)

□ 베네수엘라, '12년 중국에 100만 b/d 수출

- 남미대륙에서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으며 양국은 다양한 에너지 공동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 중에 있음.
 - 프로젝트에는 '10년 50만 b/d, '12년 100만 b/d의 석유 공급 계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경제개발을 위해 양국이 \$60억을 투자할 것임.
 - PDVSA에 의하면 양국은 공동으로 베네수엘라에 운송회사를 설립하여 VLCC를 운영할 수 있게 할 계획임.
 - 중국과의 협력으로 PDVSA는 유통부문의 추가비용 감소로 공급가가 낮아 질 것으로 예상하며 아시아시장 진입을 적극 추진 중임.
- 또한 양국은 Petrosinovensa와 Petrozumano 두 회사를 설립하여 '09년에 각각 18만 b/d와 7만 b/d를 생산할 계획임.
 - 이외에도 중국에 베네수엘라산 석유정제를 위한 정유시설 건설을 논의



중에 있음.

- 현재 CNPC는 약 4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오리노코 유전벨트의 Junin 9블록에서 유전 탐사 및 개발 작업에 참여 중임.

(El Universal, 2007.11.15)

EUROPE, MIDDLE EAST & AFRICA

□ OPEC의 석유수입 급증

- EIA는 OPEC의 석유수입이 고유가로 인해 지난해 보다 \$530억 늘어난 \$6,580억의 사상 최대 수입을 전망했음.
- EIA는 OPEC의 석유수입을 내년에는 16% 더 늘어난 \$7,620억으로 전망했으며, OPEC의 이 같은 석유수입 급증은 고유가 때문임.
-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\$1,900억, 내년에는 12% 늘어난 \$2,130억이며 UAE는 올해 \$620억, 이란 \$560억, 나이지리아 \$550억, 쿠웨이트 \$540억, 알제리는 \$500억으로 예상됨.
- 2,100만b/d의 석유를 소비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 미국의 경우 3/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OPEC이 수입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음.

(Reuters, 2007.11.11)

□ 유럽의회, 탄소거래제에 항공기 포함 결정

- 유럽의회는 EU 역내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EU 집행위원회의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음
- 이는 '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%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.
- 동 법안은 EU 회원국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를 탄소거래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함.
-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반대가 있었으나 유럽의회는 동 법안의 실행시기를 예정이었던 '13년보다 이른 '11년으로 결정함.
- 항공사들은 '04~'06년 사이에 배출한 연평균 탄소량의 90%를 할당받게 됨.



- 항공기가 '04년에 EU 역내에 배출한 온실가스량은 '03년 대비 7.5% 증가하였음.
- 한편, 유럽의회는 회원국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,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공무용 비행기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함.

(Les Echos, 2007.11.14)

□ 프랑스 Areva와 독일 Siemens 협력관계 차질

-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독일 경제금융일간지 Handelsblatt와의 대담에서 만일 독일이 원전폐지결정을 내린다면 Areva와 Siemens의 협력관계는 끝날 것이라고 지적함.
- 독일은 '20년까지 공식적으로 원전을 폐지해야 하는데, 현재 이는 보수 진영과 산업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.
- 원자력 사용을 지지하는 프랑스와 러시아, 미국은 독일이 원전폐지결정을 철회하도록 촉구하고 있음.
- Areva와 Siemens의 협력관계는 민감한 사안으로, Siemens는 Areva의 자회사인 Areva NP의 지분을 34% 보유하고 있는데, 독일은 동 지분을 계속하여 보유하길 희망하고 있음.
- Areva와 Siemens는 자회사 Framatome과 Siemens KWU를 '00년에 합병하여 원자로 제작회사를 창설하였고 핀란드에 유럽형가압경수로 (EPR)를 판매한 바 있음.
- 프랑스는 Areva와 Alstom을 합병시키는 계획을 고려중임.
- Alstom은 General Electric 및 Siemens, Toshiba-Westinghouse와 같은 거대기업에 맞서기 위해 프랑스도 거대기업을 창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며 Alstom과 Areva의 합병을 지지함.

(AFP, 2007.11.12)(Le Monde, 2007.11.13)

□ Acciona와 Enel의 Endesa 지분 매도와 신재생에너지 회사 설립

- 스페인 Acciona는 E.ON에 대한 Endesa 지분 매도가 내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하며 '08년 말에 신재생에너지 회사 설립을 완료할



것이라고 함.

- 신규 회사는 Acciona와 Enel이 Endesa 합병인수를 위한 제시조건에 포함되어 있었음.
- 동 회사는 약 24개국에 지사를 둔 예정으로 총 13,300 MW 규모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게 되며 이 중 풍력발전은 약 12,000 MW으로 전망됨.
- 이밖에도 현재 E.ON에 대한 지분매도 문제는 CNE(국가 에너지위원회)의 승인만을 남겨 놓고 있음.
- Acciona와 Enel은 E.ON에 총 1,475 MW에 달하는 Endesa 계열 석탄화력발전소와 복합발전소를 양도해야 함.
- E.ON이 Acciona와 Enel로부터 받게되는 총 보상액은 약 100억 유로에 달함.

(EFE, 2007.11.13)

□ 알제리 Sonatrach, 이탈리아와 가스협정 체결

- Sonatrach와 이탈리아는 알제리-이탈리아를 연결하는 Galsi 관을 통한 알제리 가스공급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음.
- 동 협정은 이탈리아 Sardinia 가스시장에 대한 양측의 협력방안과 알제리산 가스를 통한 Sardinia 가스시장 발전과 공급을 책임지는 연합회사 설립을 명시하고 있음.
- 동 가스관은 총길이 1,470km이며 알제리 사막지대인 하시 라틀 가스전에서 출발해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로 이어짐.
- '09년부터 이탈리아로 매년 약 80억 m³를 공급할 예정임.
- 동 프로젝트의 지분구조는 Sonatrach 36%, Edison SpA 18%, Wintershall 13.5%, Enel 13.5%, Hera SpA 9%, Sardinia 지역 10%임.
- Sonatrach는 동 가스관이 이탈리아의 가스공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새로운 협정을 통해 향후 Sardinia 가스시장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함.

(Al-Jazeera, 2007.11.16)



1. 향후 국제유가 진단

□ 개요

- NYMEX-WTI 12월 선물가격이 사상최고치(\$98.62/bbl)를 기록한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\$95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향후 \$100 달성 여부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.

□ 세부내용

- 국제유가가 \$100/bbl에 근접함에 따라 수급 불안과 달러약세 및 투기자금 유입이 석유시장에 예상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연내에 \$100/bbl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 - 국제유동성이 풍부한 현 시점에서 달러약세는 환 투기자들로 하여금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석유시장 투자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.
 - 또한 최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물가가 0.1% 증가에 그침에 따라 FRB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달러약세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.
 - 수급면에서는 OPEC이 여전히 석유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추후 추가 증산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세계 수급여건 악화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연내 \$100/bbl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음.
- 한편, 미국 FRB 의장 버냉키의 발언과 IEA의 세계석유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한 주간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연내에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.
 - 버냉키는 국회 발표에서 미국 주택시장 침체와 고유가가 미국 경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'0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더욱 둔화될 수 있음을 지적함.
 - 버냉키의 발언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미국 소비지출과 석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



있음.

- ※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경우 유가 안정세와 더불어 투기자금의 이탈로 유가 하락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음.
- IEA는 11월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'07년 4/4분기와 '08년 1/4분기 세계 석유수요 전망치를 각각 57만b/d와 18만b/d 하향 조정하였음.
- 이는 최근 유가 급등 수준이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변화시킬 정도로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전제함.

□ 시사점

- 최근 국제유가 급등이 실물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농산물과 기타 수입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.
- 한편,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 때 유가 상승과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하락 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.
- 미국 경제침체와 달러약세 지속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 하에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.

(Petroleum Intelligence Weekly, 2007.11.19)

2. 인도의 제 11차 전력수급계획

□ 개요

- 인도 정부는 제 11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'12년 3월까지 신규 전원설비 78,000MW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.

□ 세부내용

- 인도의 전력수급 현황



- 뉴델리는 제 10차 전력수급계획은 신규 전원설비 건설목표 달성에 실패함. 지난 5년동안 21,000 MW가 건설되었으며, 목표는 40,000 MW 이었음.
 - 인도는 현재 135,000 MW를 보유하고 있음. 전원구성은 화력 64%(석탄 83%, 가스 17%), 수력 25%, 원자력 3%임. 나머지 8%는 풍력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임.
 - IEA에 따르면 인도의 일인당 전력소비는 631 kWh/yr로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. 미국의 경우 14,057 kWh/yr이며, 세계 평균은 2,596 kWh/yr 임.
 - 인도의 '12년 일인당 전력소비는 1,000kWh/yr으로 전망되며, '32년에도 여전히 선진국의 '03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.
- 인도 전력수급의 문제점
- 인도의 전력부문은 공급부족에 처해 있는데 현재 가정부문의 56%는 전력계통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.
 - 전력부문의 실제 문제는 전력 보조금임. 정부는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민간 투자를 저해하고 있음.
 - 24개의 민간 기업이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보조금과 일부지역의 송배전 손실이 34%에 이르는 비효율성으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음.
- 인도의 제 11차 전력수급계획
- 현재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계획 'ultra-megapower policy'에 착수하였음.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료 공급확보, 과도한 보조금과 송전손실 문제의 해결을 포함하고 있음.
 - 발전용 연료 경제성 순위는 석탄, 수력, 천연가스 순서임. 인도석탄은 비교적 낮은 열량과 높은 회성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천연가스의 낮은 생산량과 높은 비용으로 천연가스는 아직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성을 지니고 있지 못함.
 - 향후 5개년 계획에서는 Krishna Godavari 분지로부터 상당한 천연가스



- 생산으로 인해 가스화력 발전이 증가할 전망이다.
-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선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공급부족을 겪고 있으며, 미국과의 우리나라 공급계약이 정치적 반대로 동결되었음.
 - 인도의 원자력 발전소는 3,900 MW이며, 우리나라 부족으로 가동률이 '00~'01년 82%에서 '06~'07년 57%로 떨어짐.

□ 시사점

- 인도의 제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78,000 MW의 전원설비 증설과 송전 인프라 구축이 전망되고 있으며 민자발전프로젝트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.
- 인도에 대한 전력부문 수출활성화를 위해 현지 IPP 사업자와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(World Gas Intelligence, 2007.11.4)

3. UN 국제배출권거래기록 시스템 운영 개시

□ 개요

-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국제배출권거래 기록시스템(International Transaction Log, ITL)의 운영을 개시하였음.
- ITL은 교토의정서 당사국간 탄소배출권 거래가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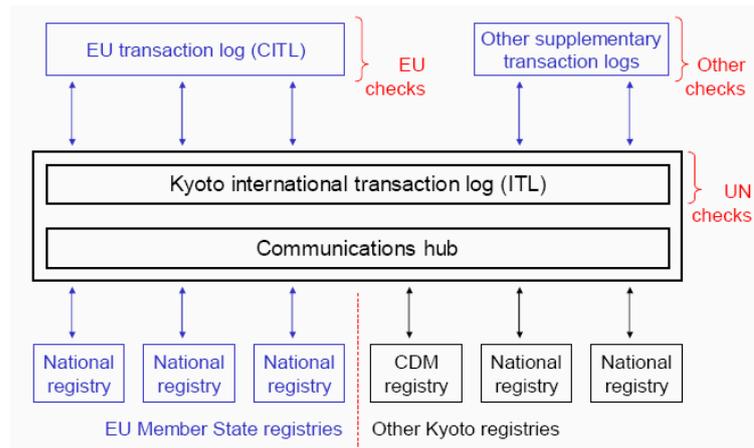
□ 세부내용

- 국제배출권거래 기록시스템(International Transaction Log)
 - '97년 교토의정서 수립 당시 배출권거래와 청정개발체제, 공동이행 메커니즘하에서 발생하는 배출권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, ITL에 관한 개념 정의는 '01년 마라케시 협약에 포함되어 있음.



- ITL은 교토의정서 당사국의 온실가스 레지스트리와 CDM 레지스트리를 연결하는 허브로,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의 발급과 이전, 소멸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임.

국제배출권거래 기록시스템(ITL) 운영방안



- 운영개시일인 11월 14일 일본은 ITL에 연결하여 실시간 운영을 개시하여 CER을 발부받았으며, 이는 CDM에서 국가레지스트리로 CER이 발부된 첫 사례임.
- 스위스 및 뉴질랜드도 각각 11월, 12월에 운영개시 예정임.

□ 시사점

- UN의 국제탄소거래 기록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CER 가격 및 거래 정보가 투명해져 관련 Risk가 줄어들어 따라 CER 거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.

(UNFCCC, 2007.11.14)



1. UK Energy Market Outlook

□ 개요

- 동 보고서에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소의 파악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수급 부문 투자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.
- 장기적으로는 일차에너지원의 공급 확보와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에 치중하는 한편, 현재는 중기적 관점에서 인프라 구축과 공급부문의 자원조달 계획수립에 중점을 두어야함을 강조함.

□ 세부내용

- 영국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에너지시장 경쟁 강화, 효과적 및 독립적인 규제강화임.
- 이러한 정책하에서 시장참여자는 가격신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에너지를 모색할 수 있음.
- 영국의 전원구성은 다양하여 안정적인 편이지만, 향후 EU ETS 체제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(Renewables Obligation)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들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.
- 영국은 '20년까지 20~25 GW의 추가적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, 현재 발전사업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발전설비 건설은 14 GW 규모에 달함.
- 중기적으로 석탄과 석유, 원자력 등 발전용 연료부족 사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.
- 그러나 개도국 경제의 급성장과 석탄 수출국의 국내 수요증가 등 석탄 가격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므로 단기 가격상승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 다변화 노력이 필요함.
- 영국은 석유수요를 국내생산만으로 충족시키기는 어려우며 수입에 의



존하게 될 전망이다.

- 세계 석유자원이 세계 수요 충족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나, 자원민족주의 등의 지정학적 위협 요소가 존재함.
- 또한 석유 수송 파이프라인이 공급국에 따라 점점 확대되어 여러 국가를 거치게 됨에 따라 공급 중단 위험도도 증가하고 있음.
- '25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위한 우라늄 조달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.
- 온실가스 문제로 에너지 효율 및 저탄소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될 것이며 따라서 수송 및 전력부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.
 -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이를 전력계통에 연결하는데 높은 비용이 예상되지만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사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□ 시사점

-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수급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기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, 이를 국내 에너지시장 전망 및 에너지수급계획의 근간으로 이용해야 할 것임.

(BERR, 2007.10)